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9월 16일 (제96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병우 컬럼

여백의 미(美)

내 나이 70에 깨달은 것이 있다. 삶의 여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백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다. 미술에서 여백은 필묵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필묵이 줄 수 없는 스토리가 여백에 있기 때문이다. 대화 중 침묵이 최고의 언어이듯이. 그래서 시공간에서 비움은 최대의 창조일 수 있다.

음악소리가 잘 울리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듯 우리 삶에 울림이 있으려면 삶에도 공간, 곧 여백이 필요하다. 우리 삶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는 것은, 우리 삶이 팍팍하고 메마른 것은 여백이 없어서다.

우리 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기 때문에 여유라는 것을 몰랐다. 그건 사치였다. 그래서 뭐든 많아야 좋고, 뭐든 손에 넣으려고 했다. 기를 쓰고 오르려고만 했다. 그러다보니 육체도, 정신도 한계에 부딪혔다. 삶에 빈공간이 없었다. 오히려 빈공간이 생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이제라도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지나친 소유욕과 승부욕, 과한 명예욕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들을 쥐고 있으니 거기서 불안, 초조, 절망, 염려, 거짓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좀 내려놓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여유로운 삶을 창출해낼 것이다. 거기서 배려, 사랑, 용서, 그리고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천국의 소망도 마음의 공간에서 싹튼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가 자신의 것으로 가득차서 주님을 모시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 삶은 부족해서 힘든 것보다 너무 짐을 많이 져서 힘이 든 경우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삶에 여백을 주자. 공간을 주자. 그 안에 크고 웅장한 울림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었다고 광주예수중심교회 담임 최권능 목사는 말했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 법, 다목적홀은 인파로 가득했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 영상이 상영된 후 단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은 오랜 시간 통성기도를 시킴으로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을 개간하신 후 짧고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살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이요,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만물을 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으며, 소경을 눈 뜨게 하였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으며, 앓은 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지글지글 타는 곳입니다. 그런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천국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고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기 않기 때문입니다(요:48). 저도 설교 후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와서 다 해결해주지요? 수리비도 주고 때론 차도 교체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어 보험에 가입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전화, 곧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는 말씀이 보험가입약관입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것입니다. 안 되던 사업이 기도로 일어나는 것도,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보험 혜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병들면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만 예수님의 보험은 그런 자들에게 우선혜택이 있습니다. 또 보험료 수령도 아주 쉽습니다. 구하면 까다로운 심사 없이 곧 지급됩니다.



광주전도집회(2018년 9월 7일~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될 줄 그것들인들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요일3:8). 마귀란 놈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놈으로 그 밑에 줄개인 귀신(불신자의 사후의 영)들을 부리며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사후의 영 귀신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일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것을 보고 천국이 있음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목사들이 이를 강력히 전해야 하건만 그들이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 보험을 들어놓으셨지요? 사후의 보험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죽은 다음 세상에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

그런 보험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은 설교 후에 병든 자들을 단에 올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 병어리가 말을 하고, 앓은병이가 일어났다. 또 한 둘째 날에는 6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여인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보험 든 자들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것을 본 자들이 부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기 바란다.

기자 신묘수



6년 동안 누워있던 여인이 예수이름으로 일어났다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셨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5:11~24)



깨달은 자는 듣고 깨달으라

지난 수요일에 이시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저는 주일예배 때 다시 성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설교가 이시대 목사의 일생일대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시대 목사는 정확한 핵심을 짚었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관용이 따르지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관용은 독이 되고, 깨닫지 못한 자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경우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나가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생활할 줄 뻔히 알았지만 그를 만류하지도 않았고, 나간 뒤에 수소문해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아버지는 사람을 풀어 아들을 끌고 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눅15:24)고 했습니다.

깨달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그렇습니다. 깨닫고 돌아온 아들은 이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가 끌고 왔다면 그는 언젠가 다시 집을 나갔을 것이고, 집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는 집안의 화근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그는 누이 다말을 강간한 장형 압논을 죽이고 부왕인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술 외가에 3년간 숨어 지냅니다(삼하13). 세월이 흐르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안 요압이 압살롬과 왕을 화해시키기 위해 한 여인을 왕에게 보내 압살롬을 사면하도록 계책을 꾸미고, 마침내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삼하14). 그러나 자그마치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은 다윗을 알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치민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 그의 밭에 불을 질렀고, 요압과 대면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그술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 왜 고생을 시키느냐, 빨리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찌 되었든 다윗과 압살롬은 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과 상면 후 바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윗에게 향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렸고, 왕위 찬탈 계획을 세운 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그 계획을 추진하여 왕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부왕의 군대와 싸우

고 삼림 중에서 패주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삼하15,18).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압살롬은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압에 의해 끌려 다윗에게로 왔기 때문에 만사 불평만 했고,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도모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를 받아주고,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인정상, 혹은 교회를 떠날까봐 받아주면 압살롬처럼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 문을 연 자에게 들어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출 청소년이나 바람난 남편을 찾아 나서지 말고 탕자 아버지처럼 기다려주세요.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야 사



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끝내 깨닫지 못한 자를 버리십니다. 발람 선지자와 가룟 유다가 그 대표입니다. 막강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모압을 향해 진군하자 모압 왕 발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에게 도움을 청하려 많은 재물과 함께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날 밤 꿈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발람의 초대에 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발람은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더 높은 귀족과 더 많은 재물로 다시 초대를 했고, 어리석게도 발람은 초대에 응해 길을 떠납니다. 발람을 등에 태운 나귀는 모압으로 향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도망하려하자 발람은 나귀를 때리며 길을 재촉합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을 공박합니다. 그래도 끝내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모압을 향해 갔고, 그는 훗날 미디안 방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민31).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고로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마26:21)고 하셨습니다. 그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다들 서로 근심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면서 같이 그릇에 손을 넣어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였고, 그가 “내니이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놓고 말해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 삼십 냥에 예수를 팔고 그때서야 뒤늦은 후회로 자살하고 맙니다.

사울왕도 다윗이 두 번이나 생명을 살려주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나무라고 경고를 해도 아말렉전에서 좋은 소와 양을 취하고,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는 등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왕관을 다윗에게 넘기셨고, 그는 자식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삼손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해도 그렇지,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면 끝을 내야지, 어떻게 진실을 토로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뿔혀 뿔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한단니까(삿16)? 그런 자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잠27:22).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죄가 없어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얼른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 아닙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한 죄를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늙어서까지 동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 다윗은 늙어서도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대하29:28).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이나 제단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신상을 만들어 우상숭배의 탈선을 범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했습니다. 결국 예언자들의 예고와 같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 사슬에 묶여 옥고를 치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 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비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왕위에 앉히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섬겼던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와 전을 중수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 55년 동안 왕위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대하33).

깨닫는 것이 최대의 복이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복은 고난당하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남편과 자식 둘을 보내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많은 처첩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던 때를 지나 늙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고 한 솔로몬처럼 되지 말고, 지금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깨달았느냐고 물으시니 다들 깨달았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13:52). 이는 깨달은 자는 참 제자, 참 목사가 되어 천국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는 것입니다. 즉 깨달은 것은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책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탕자 아버지가 그랬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눅15:24)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곳간의 주인처럼 하늘의 창고를 맡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웅달샘 ::

엄마의 능력

“아니, 여태 집을 안 싸고 뭐하고 있니?”
“엄마가 싸줘야 해요.”
“헐, 대학생이나 된 녀석이, 더구나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닌데 여적 엄마가 해줘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해줘야 깔끔하게 잘 쌀 수 있단 말예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때면 늘 반복되는 딸과의 대화다. 제 댄에는 아무리 잘 싸보려 해도 엄마가 해주는 만큼 안 되는지 요맘때만 되면 엄마에게 SOS다. 비행기에 실어야 하는 짐이라는 것이 23kg을 넘게 되던 돈을 더 내야하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넣되 넘지 않게 싸느냐가 관건이다. 그래도 국내항공사는 약간의 유두리가 있지만, 외국항공사는 잘 없다. 그래서 몇 번인가 체크인카운터 앞에서 가방을 열고 짐을 들여보느라 갸깁거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두세 번의 시행착오 후에는 기가 막히게 중량을 맞춰 싸는 실력이 오직 엄마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다. 아빠는 그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존재, 엄마는 문제해결사, 뭐 이런 의식이 딸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섭섭해도 인정할 수밖에.
아이를 낳고 20년 넘게 살다보니 참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하다. 자식에 대한 무한사랑의 정도도 아빠랑은 비교할 수가 없고, 내가 보기에 집사람이 그리 똑소리 나는 스타일도 아닌데 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보면 거의 원더우먼

수준이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느니, 아빠가 더 좋다느니 하는 딸의 멘트에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빠들이라지만, 그건 별 문제 없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엄마의 손길이 절실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깔끔히 정리가 되곤 한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섭리일까? 자식을 피 흘려 낳은 것은 아빠가 아닌 엄마이기 에 자식에 대한 생각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영국문화협회에서 비영어권 102개 국가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mother(엄마, 어머니)’였단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대답이다. 그래서 그럼 ‘father(아빠, 아버지)’가 2위인가 했더니 천만의 말씀, 10위권 안에도 없었고, 심지어 70위권 안에서도 찾을 수 없어 찾기를 포기했다고 고(故) 황수관 박사는 마지막 강의에서 말했다. 어머니의 무한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케 하는 이 땅의 잣대가 되곤 한다. 10개월간 입덧과 온몸이 갈거리 찢기는 산통으로 피 흘려 낳은 자식에 대한 무한애정은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힘이다. 예수님의 무한사랑은 끔찍한 십자가형의 고통으로 모든 죄를 씻은 결과이기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절대사랑이다. 그러기에 오늘도 눈물로 고백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은택 목사

:: 성경에세이 ::

면허증 있나?

여보게!
만일 자네더러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라고 하면 어떻게겠는가? ‘믿 습니다.’ 하고 탈건가? 난 절대 안 탈거라네. 불을 보듯 결과를 알기 때문이지. 우리 손자 녀석 하나가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땀네. 그러나 아직 그 녀석이 운전하는 차는 안 탈거라네. 목숨이 오가는 것인데 손자라고 탈 수는 없지.
그런데 말일세, 목숨도 불안한 상황에 맡기지 않은데, 영혼은 어떻게겠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하는 거라네.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이지. 면허증 없는 자에게 영혼을 맡겼다면 영멸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 아니겠는가(눅6:39). 영의 세계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네. 영의 눈을 떠야 볼 수 있지. 영의 눈을 뜨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네. 천사도 보고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 보이거든. 이걸 성경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네. 성경공부로 영적 지각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세. 오직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 했지. 그런데 요즈음 성도들은 능력이 없네. 왜 그럴까? 영적으로 무능한 지도자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지. 되레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을 이단임네, 잘못됐네 하며 훼방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통탄하신다네. “내 백성이 지식 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4:6).
여보게!
영적 면허증은 오직 기도로만 딸 수 있다네. 제자들이 병어리 귀신들린 자를 쫓지 못하고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았지.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지만, 아무나 따지는 못하는 것이 영적 면허증이라네. 왜냐하면 낙타무릎이 되어야 하니까. 자네 할 수 있지?

朋友

당신의 명함은?

우리 목사님은 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족하다 하십니다. 몇 해 전가나 집회에 갔을 때, 주최 측의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우리 목사님을 ‘박사’라고 소개하자 마이크를 넘겨받은 우리 목사님은 “나는 박사가 아니라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정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명함이 있었다면 사울이던 시절의 명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로마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다는 등 엄청난 스펙을 나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명함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아주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고 썼을 겁니다.
누구나 명함 하나쯤은 있습니다. 일일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어려우니 명함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작은 명함 안

에 자기의 경력과 현재의 직책에 대해 쓰여 있지요. 그런데 명함에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써 넣는 분이 있을까요? 어느 교회 장로요, 집사라고 명함에 넣는 분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명함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라고 적는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나 양심에 가책을 느낄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일에도 선불리 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만한 믿음을 소유했을 거라 사료됩니다.
성경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하나님의 직분을 과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디 당신 명함 좀 봅시다.

예수중심편집실



:: 연단을 넘어 ::

함부로 마침표 찍지 말자

초등학교 때부터 늘 거짓말을 하던 아이가 있었다. 거짓말과 허세가 가득했고 질이 나쁜 형들과 어울리며 온갖 나쁜 짓을 따라했다. 기회가 생겨 그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눴더니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부모가 알코올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으니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비싼 옷과 허세로 위장했던 것이다. 새로워지기로 결단했으나 번번이 넘어지기를 6년, 올해 초엔 큰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고갔다. 괴로운 마음에 더 이상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결단했으나 친구들이 강해를 대동하여 집까지 찾아왔다. 신발을 빼앗고 택시비를 갈취해갔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같이 나쁜 짓을 한 전적이 있으니 자기들끼리 생긴 해프닝으로 알고 소극적이었다. 결국 교회로 피신시켰다. 교회에 오랜만에 찾아온 이 아이를 보며 누군가 이야기한다. “전도사님, 한두 번 속으셨어요?” 이 해가 간다. 6년째 아닝가.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 덕분에 우리도 여기 있게 된 것임을 가르치고 그 아이를 다시 품어주었다. 지금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의심하던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는 예의바르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었다. 내가 한 것은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뿐인데 그 아이는 나를 평생의 은인이고 스승이라 말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난 그저 그분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마침표를 찍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원표를 찍으시고, ‘장차 계바가 되리라’ 말씀하신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벌써 무더위의 땀자락이 보이고 가을이 손짓한다. 주님께서 ‘거들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신다. 주님의 일꾼은 다름 아닌 영혼을 건지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마침표는 심판 날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한 번 더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나의 사랑을 통하여 사울 같은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실지 모르니 말이다.

이은총 전도사
unjena7@hanmail.ne

하나님의 계시와 부정은 다르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불법체류로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며 돈을 벌던 그분은 나이도 있고 힘도 들어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계셨다. 저 또한 보고 있기에 안 타까워 간절히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다.

그렇게 지쳐있던 어느 날, 안 믿는 지인이 일본남성으로부터 쉽게 돈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는 ‘나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간단하게 돈을 손에 쥐다니...’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는지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갔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 그런지 일본남성이 그분 앞에 나타났다.

그분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자 불법체류로 있던 터라 결혼으로 비자를 갖고 싶어졌다. 그분 주변에 있던 두 사람이 일터통역까지 해주며 결혼을 부추겼고, 그분도 결혼을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결혼 하라고 부추겼던 사람들 중 한사람은 병들어 다 죽게 되었고, 또 한사람은 자신은 물론 그 자식도 하던 일이 잘못되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옳지 않은 일을 부추긴 대가인가 하고 감히 생각했다.

남편과 떨어져 오랫동안 별거를 했더라도 남편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

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결혼상대자를 믿음 안으로 전도하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결혼하겠다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배가 끝나자 그분이 이상한 꿈을 꿔다며 풀어달라고 한다. 하늘에 글씨가 나타났는데 1,2,3,4,5,7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잠시 기도를 하고 주의 종은 ‘왜 6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며 창세기 1장을 펴라 하고 같이 읽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계시인 꿈을 풀어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1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고, 2는 둘째 날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3은 셋째 날로 풀, 채소, 과일 등 과목을 만드셨고, 4는 넷째 날로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5는 다섯째 날로 땅위의 모든 생물 등 새와 물속의 모든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7은 일곱째 날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6의 뜻은 이렇게 풀었다.

“빠져있던 6의 뜻은 여섯째 날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

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또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먹을 거리를 허락하시는 6일째가 빠진 것은 그 일본사람과 결혼할 경우 앞으로 먹거리,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고 풀어드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주의 종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며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 그분은 이혼과 결혼을 했지만 생활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그분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고, 현재 우리교회에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예배에 총회장 목사님이 ‘듣기를 싫어하는데 낸들 어찌겠는가?’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위기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분과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갱년기와 사춘기의 열을 치자

최근까지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밤마다 수시로 깨다 자다를 반복하고 에어컨을 틀었다 끄다하면서 수면과의 전쟁을 치르며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전부터는 아침저녁에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더위에 지친 마음과 신체에 조그만 위로를 주니 살 것 같습니다. 다들 경험해보셨겠지만, 날씨가 매우 무더운 밤에는 숨이 콕콕 막히게 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여성분들은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숨도 막히고, 그 후에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수시로 반복되어 무더운 여름의 불편감을 갱년기 증세로 인하여 사시사철 겪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춘기의 자녀들에게도 더운 여름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서 열이 이유없이 나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통해서 더위를 날려버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갱년

기와 사춘기의 열은 수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손톱에 물들이거나 옷감에 물들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치자라는 약초가 묘약입니다.

치자(梔子)는 치자나무의 성숙한 과일을 건조하여 만든 것으로, 간(肝) 심(心) 폐(肺) 위(胃) 삼초(三焦)와 같은 신체의 가슴주변에 효능이 있습니다. 주로 고열이 나거나 코피, 입 냄새, 마음이 불안하거나 밤에 더워서 잠을 자지 못할 때 등에 활용이 됩니다. 갱년기 주부들의 열을 낮추어 주는데 치자 10g을 연하게 끓여서 하루에 여러 번 차로 마시어 준다면 열감이 줄어들게 되며, 사춘기 아이들의 코피나 답답함, 몸에 열이 많을 때 역시도 치자 10g을 연하게 끓여서 마시면 열이 차츰 내려갑니다.

중국집에서 짜장, 짬뽕과 함께 같이 먹는 단무지 역시 무를 치자 물에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단무지는 중국음식 중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열을 낮추어주거나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시원한 맛으로 느끼함을 줄여주는 중국집 효자 반찬입니다. 치자는 몸에 열이 많아서 추위보다는 더위를 잘 느끼는 사람에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외향적인 성향보다는 조금은 내향적인 성격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가슴에 열감이 있고 그로 인해 무기력 할 때가 종종 있다면 가정용 상비약으로 치자를 달여 먹을 때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자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치자를 차로 복용했을 때 손발이 좀 더 차가워지거나, 소화력이 약한 체질의 경우는 치자를 장복할 경우 소화가 잘 안될 수도 있으니 소화력이 떨어지면 복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치자로 인하여 열이 줄게 되면, 가슴이 시원하고 호흡이 편해지면서 속 시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새벽기도

금식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삶과 직결된 음식을 포기하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힘이 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침잠은 너무나 소중하다. 평상시보다 단지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대부분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은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 소중한 아침잠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10여 년 전 대학부 임원으로 봉사할 때, 담임목사님께 건의하고 새벽기도를 활성화하려고 힘쓴 적이 있다. 한두 사람이 시작해서 어느덧 열 명이 넘어서면서 새벽기도에 불이 붙었고,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 갖가지 은혜와 선물을 주셨다. 소소한 선물에서부터 크게는 대학 등록금까지...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과 부흥시키려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일에도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좋은 대안은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녁에 불필요한 TV시청, 인터넷, 게임 등을 줄이면 일찍 잠에 들 수 있다. 부모가 일찍 잠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해야 아이들도 일찍 잠에 들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가장 왕성하다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일찍 일어난 시간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보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남들이 아직 자고 있는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로 성취감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매사에 효율이 오른다.

예전 대학부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오늘도 동역자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